

올해 대상경주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24일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장·단거리를 망라한 국내 최고 경주마를 가리는 통합 챔피언십의 첫 경주 'SBS스포츠 스프린트'와 'KRA컵 클래식'이 각 7경주와 8경주로 열린다. 단거리 최강자 블루치퍼, 장거리 최강자 문학치프, 디펜딩 챔피언 모르피스와 청담도끼까지 한국 경마를 대표하는 스타 경주마들이 총출동한다.



올해 대상경주가 장·단거리를 망라한 국내 최고 경주마를 가리는 통합챔피언십 시리즈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24일 첫 경주인 'SBS스포츠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우승 유력마 블루치퍼. 선행형으로 부산 경주마 중 최고 레이팅이다. 현재 1600m 국내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내가 넘버원”...스타 경주마 총출동

SBS스포츠 스프린트

디펜딩 챔피언 모르피스 투입 강자 어마어마 최근 1년 6전6승 괴력

▲블루치퍼(거, 6세, 미국, 레이팅 136, 승률 60%, 복승률 73.3%)

2019년 한국 경주마 최초 코리아스프린트 우승에 이어 미 브리더스컵 원정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레이팅 136으로 부산 경주마 중 최고다. 현재 1600m 국내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거리와 중거리 모두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

▲모르피스(거, 6세, 미국, 레이팅 130, 승률 33.3%, 복승률 56.7%)

지난해 'SBS스포츠 스프린트'에서 무

서운 추임을 보여주며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함께 우승을 차지했던 빅투아르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어마어마(수, 4세, 미국, 레이팅 122, 승률 81.8%, 복승률 90.9%)

11전 9승에 2착 1회, 3착 1회를 기록했고 최근 1년간 6전 6승을 거둔 이름값을 하는 경주마다. 경주거리 1200m에서도 최고기록과 0.4초의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기량이 좋아 이번에 7연승을 노린다.

▲이스트제트(거, 4세, 한국, 레이팅 118, 승률 64.3%, 복승률 78.6%)

지난해 1200m 서울마주협회장배(GⅢ) 대상경주에서 어마어마와 모르피스를 제치고 우승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국산마 중 두 번째로 높은 레이팅이다.

KRA컵 클래식

문학치프, 코리아컵 첫 국산마 우승 대상경주 9회 우승 청담도끼도 주목

▲문학치프(수, 6세, 미국, 레이팅 138, 승률 52%, 복승률 68%)

2019년 코리아컵 최초의 한국 우승마가 됐고 3개월 후 그랑프리까지 석권하며 연도대표마 자리에 올랐다. 1년여를 쉬고 1월 복귀전을 치러 레이팅이 급상승한 티즈플랜을 상대로 6마신 차 완승을 거두었다. 이번 경주 57kg이라는 다소 가벼운 부담중량을 받았다.

▲청담도끼(가, 7세, 미국, 레이팅 138, 승률 51.4% 복승률 71.4%)

대상경주서 9번이나 우승했다. 데뷔 후 35전 18승을 거두며 30억 원이 넘는 상금을 수확했다. 2018년 4번의 대상경주를 휩쓸며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2019년에는 문학치프의 기세에 다소 밀렸다. 지난해 6월 헤럴드경재배로 부활해 7월 YTN배에서는 서울경마공원 신기록을 경신했다. 경주마로 적지 않은 나이(7세)가 관건이다.

▲미스터어플릿(수, 5세, 한국(포), 레이팅 117, 승률 64.3%, 복승률 85.7%)

올해 부경 경마공원 국산마 최고 레이팅 자리에 올랐다. 8월 첫 출전한 2000m 경주에서 56kg의 부담중량에도 2분6초 4의 좋은 기록을 보였다. 서울 2000m 혼합 대상경주 우승마 평균기록이 2분7초 7임을 감안하면 우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일본 JRA가 주최하는 재팬컵의 2020 경주 모습.

온라인 베팅 도입 전략 적중 일본 경마의 이유 있는 호황

요즘 국제무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이웃 일본 경마의 도약이다. 최근 일본중앙경마회(JRA) 마사유키 고토 회장이 국제경마연맹(IFHA) 부의장(아시아지부 대표)에 선출됐다. 이번 제55회 IFHA 총회 공식파트너도 일본 JRA가 맡았다. IFHA 총회에 앞서 열린 100번째 개천문상 경주에서는 스노우폴, 크로노 제네시스, 닥 본드 등 일본 경주마가 3마리나 출전했다. 일본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11월 미국 '브리더스컵'에도 6마리를 출전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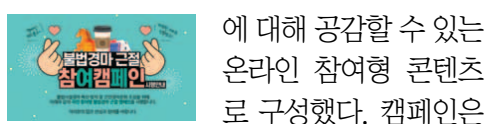
일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2월부터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면서 발매와 환급 업무는 모두 온라인이나 전화만 허용했다. 2002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덕분이다. 2002년 온라인 발매 도입 이후 63%에 달했던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2019년 25%로 감소했고 2020년은 6.3%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온라인은 70%까지 증가했다. 일본의 경매 매출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JRA의 총 매출은 2조9834억 엔(30조708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1%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장외매출이 약 90%를 차지한다. 지방경마를 담당하는 NRA의 매출도 8205억 엔(8조205억 원)을 기록하며 역시 2019년 대비 27%의 매출 증대를 기록했다. 현재 일본은 온라인 베팅을 다른 프로스포츠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마, 경륜, 경쟁 및 모터사이클 레이싱 이렇게 4가지 스포츠에만 허용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시장은 2019년 기준 총 발매매출이 약 6조 엔(61조 6900억 원)에 달했다. 모바일 베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플랫폼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연간 6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스포츠 베팅 시장 확장을 위해 축구나 야구 같은 프로스포츠에 2024년부터 스포츠 베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마계는 가을 국제경주 시리즈 준비에 한창이다. 11월 14일 '퀸 엘리자베스 2세 컵'을 시작으로 '마일 챔피언십', '재팬컵' 그리고 12월 5일 '챔피언스 컵'까지 시리즈 경주가 잇따라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경주인 재팬컵에는 아일랜드 소속 경주마 '러브'와 일본의 '스노우폴' 등 지난 개천문상 경주에 출전했던 말들이 출전등록을 마쳐 현지 경마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김재범 기자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참여 캠페인

한국마사회는 12월 12일까지 불법사설경마 확산방지 및 건전경마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경마 근절 참여 캠페인'을 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해 비대면으로 시행한다. 경마고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참여 대상이며 불법경마의 심각성과 폐해



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캠페인은 총 3회에 걸쳐 불법사설경마 O/X퀴즈, 초성퀴즈, '불법근절' 사행시 짓기를 진행한다. 각 회별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음료교환권을 지급한다. 사행시 우수작은 10만원 상당의 상품도 수여한다.

마사회 말박물관 온라인 특별전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온라인 특별전을 열고 있다. 5월 21일 '기마인물도'로 시작한 소장회와 특별전 '옛 그림 속 말(馬)'이 전하는 말(語)로 1~3편은 인제, 관리, 영웅, 성공, 풍요, 양(陽) 등 전통 회화에서 말이 지니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소개했다. 11일부터 특별전 4편을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 4편에서도 감상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9일 까지 열리며, 유튜브 채널 '마사회 TV'를 구독하고 온라인 전시 4편 영상에 감상평을 남긴 후 화면을 캡처해 이벤트 응모 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탁구·골프

한국프로탁구리그, '두나무'와 손잡고 내년 1월 개막

27개 실업탁구팀 1·2부로 나눠 경쟁 두나무와 동행...유승민 협회장 큰힘 이석우 대표 "리그 개최 적극적 지원"

한국 탁구가 오랜 숙원사업인 '프로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

대한탁구협회는 21일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엠베서더 강남 샵에서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 협약식'을 가졌다. 협회는 한국실업탁구연맹과 2021년 초부터 프로리그를 추진했다. 이는 한국 탁구의 국제무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숙원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2022년 1월에 막을 올리는 한국프로탁구리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초대 타이틀스폰서를 맡았다. 두나무는 2년간 총액 20억 원을 후원하는 조건으로 한국프로탁구리그와 '동행'을 선택했다. 이로써 한국프로탁구의 첫 리그 명칭은 '2022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로 정해졌다.

리그는 내년 1월 개막해 6월까지 진행된다. 27개 실업탁구팀이 프로리그에 참가하며 기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왼쪽)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1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 협약식'에서 탁구대표팀 사인이 담긴 액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업팀은 코리아리그(1부), 지방자치단체 팀은 내셔널리그(2부)로 나눠 경쟁한다.

코리아리그 남자부는 7팀, 여자부는 5팀이다. 내셔널리그는 남녀 각 6개 팀과 9개 팀이다. 포스트시즌은 리그별 상위 3팀이 플레이오프(2~3위), 챔피언결정전(2·3위전 승자 vs 1위 팀)으로 나뉘어 우승팀을 결정한다.

올림픽 종목 중 한국에서 프로출범을 하는 종목은 탁구가 복싱, 골프, 야구, 축구, 농구, 배구에 이어 7번째다. 첫 걸음을 떼는 한국프로

탁구가 볼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와 손을 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 참가해 "생활체육의 대표종목이자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한국 탁구의 파트너로 프로리그 시작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성공적인 리그 개최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동행하게 된 데에는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의 역할이 컸다. 유 회장은 "근래에 가장 뜨거운 회사인 두나무는 사회 공헌적인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탁구에 여러 IT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두나무와 공감대가 형성됐고, 사회 공헌으로 탁구라는 스포츠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두나무측의 의견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후원을 결정한 두나무측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위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향후에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위기의 정한밀·유승규 "KPGA 시드 확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R 공동 2위 대상P나 상금 70위 이내 들어야 생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절박함 덕분일까. 성적 부진으로 내년 시즌 시드를 잃을 처지에 몰린 '위기의 남자' 둘이 첫날 좋은 스타트를 끊으며 반전을 예고했다.

정한밀(30)과 유승규(25)는 21일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GC(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 1라운드에서 나란히 6연타 66타를 쳐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코리아투어에서 다음 시즌 시드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노선은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와 상금순위 70위다. 둘 중 하나만 70위 이내에 들어도 다음 시즌 시드를 보장받는다.

2017년에 투어에 데뷔한 정한밀은 현재까지 제네시스 포인트 89위, 제네시스 상금 순위 83위에 처져있다. 올 시즌 코리아투어는 이번 대회와 2주 뒤 최종전 LG시그니처 플레이스 챔피언십 둘만 남았다.

최종전은 제네시스 포인트 순위 70위까지 단 출전권이 주어질 정한밀이 다음 대회에 나



정한밀 유승규

가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에서 '톱10'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실패하면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시드전에 나가야 한다.

정한밀은 "투어 데뷔 이후 처음 시드전에 나가야 할 위기"라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시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 시즌 제네시스 포인트 103위, 제네시스 상금 순위 112위로 정한밀보다 더 절박한 처지의 투어 7년차 유승규는 "이미 마음을 비웠다. 내려가더라도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면서도 "이번 대회서 톱5에 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